

제81회 식목일 기념 행사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나무 1170그루 식재 전남도, 산림복원 속도...묘도에 편백숲 조성

자원봉사자 등 300명 참여
느티나무·이팝나무 등 6종



고광원 광주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24일 오후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자원봉사자, 직원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는 24일 남구 노대동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2026년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고광원 광주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 느티나무·이팝나무·청단풍·은목서 교목 4종과 자산홍·조팝나무 관목 2종 1170그루를 심었다. 참석자들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일상 속 녹색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도시숲 확대와 생활권 녹지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도 시민 참여형 녹색 실천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고광원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나무와 숲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숲과 생활녹지를 지속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재선충 피해지 7500그루 심어
탄소흡수원 확대·녹지 회복



전남도는 24일 여수 묘도 산단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서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건강한 숲 조성에 나섰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여수 묘도 산단단지 주변 산림에 편백나무를 심으며 산림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대 작업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24일 여수 묘도 산단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서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건강한 숲 조성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정현규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임업단체, 시민단체 회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가 열린 묘도 일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림으로, 전남도는 병해충에 강한 수종으로 숲을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단지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기질 개선과 경관 회복 효과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편백나무 묘목 7500그루를 식재하며 탄소흡수원 확대와 산림 복원의 의미를 공유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22ha 규모의 편백숲이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지역 대표 숲으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날 행사에서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사)숲속의 전남이 참여해 매실, 자두, 석류 등 유실수 1천 500그루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생활 속 나무심기 실천을 유도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광주와 지역대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매력 알릴 '유학생 서포터즈' 위촉

16개국 21명 구성...SNS로 광주·지역대학 홍보활동

광주시는 2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광주와 지역대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 선서, 기념 촬영, 사전활동 교육, 서포터즈 소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서포터즈는 베트남·인도·스리랑카·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21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광주를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지역대학 투어와 '외국인 유학생의 날'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광주에서의 유학생생활과 지역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시는 서포터즈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2023년부터 운영해 현재까지 총 72명이 수료했으며, 광주와 세계를 잇는 교류 창구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6641명으로, 지역대학에서 학업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CC 5기 서포터즈 출범...역대 최대 50명 활동 돌입

10개월간 공연·전시 등 시민 참여 본격 홍보
온라인 플랫폼 활동 문화예술 콘텐츠 선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최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활동을 이끌어갈 'ACC 5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선발된 'ACC 5기 서포터즈'는 총 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CC 서포터즈'는 ACC의 전시와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게 ACC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할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ACC의

매력을 확산한다. 'ACC 서포터즈'는 지난 2022년(1기) 23명을 시작으로 2023년(2기)과 2024년(3기) 각 30명, 2025년(4기) 40명, 2026년(5기) 50명까지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활동한 4기 서포터즈는 총 1094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ACC의 전시와 공연, 행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올해 선발된 5기 서포터즈는 지난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ACC의 주요 전시와 공연, 행사를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 활발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활동을 이끌어갈 'ACC 5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히 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서포터즈'는 일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게 ACC의 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통해 ACC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광산구, 화재 예방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대형시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집중 관리

광주 광산구가 최근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대응해 지역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석용 부구청장 주재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형시설물과 공사장, 산업단지,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설물 관련 13개 부서 가 참여해 분야별 점검 방안과 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구는 오는 4월3일까지 전기·소방·건축 분야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며, 화재 취약 구조물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

부, 피난시설 및 대피로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대형시설물과 공사장 24개소를 대상으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또 제1·2층 대형시설물을 중심으로 전기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설비 작동 여부,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산업단지와 공장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광산구에는 자동차부품공장 100여 개가 입주해 있는 만큼, 제조업 공장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체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진행할 예



광산구는 24일 김석용 부구청장 주재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형시설물과 공사장, 산업단지,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정이다. 각 부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험 사항이나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보완 조치와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는 이번 긴급 안전점검 이후에도 오는 4월 20일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지역 내 취약시설 105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김건홍씨 별세. 김순희(광주 남구 아동 청소년과장)·김정재씨(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 부장) 부친상. 노침민(한화솔루션)·이영철씨(광주시 대변인 미디어운영팀장) 장인상 = 2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25일. 062-527-1000

은세

48년생 화를 부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60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줄은 운
72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84년생 공격적인 목표로 도달하는 날
96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처리해라
51년생 짐을 지키는 것이 좋다
63년생 금전이 생기며 주변에 칭찬을 받는다
75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 바뀔 수도 있다
87년생 구제성이 요구된다
99년생 친구 일애 동조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4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6년생 행운이 오니 일관되게 추진하라
78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된다
90년생 사업은 재미없으니 직장에 열중 하라
57년생 재산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
69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81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시기
93년생 남자는 귀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49년생 부동산 거래는 단념하라
61년생 여행·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
73년생 출정을 잘 붙이면 사세가 두둑할 것
85년생 지금 거래는 이뤄지기 어렵겠다
97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52년생 남 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라
64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
76년생 재물(송진)을 얻는 길항이 있다
88년생 시댁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라
55년생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70년생 예상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겠다
79년생 직감과 예감 빠르니 즐거운 하루
91년생 마음의 병은 오래간다
58년생 지나친 문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0년생 제 3자로 인해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82년생 시댁이 도우니 일이 유리하게 된다
94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무슨 일이든 정도를 지키면 편안하다
62년생 문서를 미련을 갖지 말 것
74년생 말을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 온다
86년생 원하던 일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
98년생 방법을 바꿔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53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철회하라
65년생 미룰 수 있는 출장이러면 미뤄라
77년생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89년생 일이 많아지니 마음은 편안하다
56년생 부동산 거래 지금은 아니다
68년생 부주의로 인해 금전 나가는 운
80년생 고정관념 버릴 때 창의성 발휘된다
92년생 상사와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59년생 바쁘지만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적다
71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다
83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연기된다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배워라